제주 대학입학 자원 2030년 정점 후 내리막

지난해 말 기준 대학 입학연령 18세 6421명
2025년 기준 도내 대학 모집 정원은 5029명

제주지역 대학들의 입학자원이 오는 2030년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학내 정원조정을 비롯한 학사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 내 대학입학연령인 18세 도민은 6421명으로, 11세 이하인구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출생아수는 2015년 5500명대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2030년 입학자원이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15년 후에는 제주도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2025년 5029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자연 감소 등으로 이러한 역전현상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소재 4년제 종합대학은 2개, 전문대학 2개, 기능대학(폴리텍)은 1개다. 2022년 기준 제주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74.4%, 대학생 충원율 82.7%, 중도 탈락률 15.1%, 전임교원 확보율 19%, 취업률은 70.3%이다.

도내 대학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보면 제주대학교는 높은 신입생 충원율(99.0%)과 재학생 충원율(110.5%), 낮은 중도탈락률(5.1%), 높은 전임교원 확보율(116.8%)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취업률(56.5%)을 보이고 있어 교육성과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국제대학교는 매우 낮은 신입생 충원율(16.2%)과 재학생 충원율(29.8%), 높은 중도탈락률(18.9%)과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55.77%)에도 높은 취업률(66.8%)을 보이고 있으나 심각한 경영난을 보이고 있다.

제주관광대학교는 같은 전문대인 제주한라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입생 충원율(75.3%)과 재학생 충원율(78.4%), 높은 중도탈락률(14.6%)과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59.26%)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72.8%)을 보이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같은 전문대인 제주관광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입생 충원율(80.7%)과 재학생 충원율(108.6%), 낮은 중도 탈락률(5.9%)과 높은 전임교원 확보율(63.13%)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69.7%)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대학들은 2025년 모집정원을 2022년 대비 3.3% 감축했다. 고대로기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 경기도산 제주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0시부터 경기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시 닭(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경북 의성시 닭(산란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검사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12일 오전 0시부터 반입금지 지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남, 충남에 이어 경기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 지역으로 설정하고 살아 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전국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추가지정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먹이 찾는 사슴 한마리 10일 제주시 용강동 한 들판에 사슴 한마리가 내려와 먹이를 찾고 있다. 이상국기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산림청, 제주 첫 지정

서귀포시 소재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됐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산림교육센터 지정은 최근 열린 제4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산림교육센터는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전국에 22곳(2022년 12월 말 기준)이 지정되어 있다. 청소년, 소외계층 등에 대한 산림교육,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지원,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 연수 등을 추진한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전체 면적이 190ha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남조로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잔디 광장, 오름 등반로, 상잣성 숲길, 해맞이 숲길 등을 갖췄다.

산림교육센터 지정에 따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올해 '제주형 숲교육'을 목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산림 레포츠 숲체험,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17개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과 연계해 학생 건강을 위한 어린이 상상의 숲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숲 액티비티 체험 교육, 어린이 사계절 숲학교, 청소년 마음돌봄숲 등을 펼친다. 진선희기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률 높여라"

서귀포시, 지난해 재활용품 팔아 16억원대 수입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품 중 2200t은 소각장行

지난해 서귀포시지역 재활용품 선별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지만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서 2000t 이상은 재활용이 안돼 소각장으로 향하면서 선별률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3년 재활용품 선별률은 2022년(56.0%)에 비해 11% 증가한 66.7%로 집계됐다. 선별률은 반입량에 대한 매각량 비율로 실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해당된다.

이 같은 선별률은 당초 목표(58%)를 뛰어넘는 수치이지만 지난 한 해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들어온 6612t의 재활용 폐기물 중에서 4415t만 매각됐다. 나머지 2197t은 재활용할 수 없는 소각 대상인 것이다. 2022년에는 전체 반입량 8469t 중에서 3722t, 2021년엔 8800t 중에서 3969t이 각각 소각 처리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출 단계부터 재활용품을 깨끗한 상태로 버리는 등 시민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선별률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된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활용품 선별률이 높아져야 소각,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올해는 69% 달성을 위해 분리·선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에서 작년에 재활용 폐기물을 매각해 거둔 수익은 총 16억3600만원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올해 매각 품목에 G페트류(투명 플라스틱컵류, 판트레이 등)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기존 11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매각 공고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재활용품 시장 매매 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 13억 투입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5000㎡ 이상 재배… 소형트랙터·드론 등 75대

제주시가 규모화 된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올해 13억3400만원(도비 8억, 자부담 5억3400만원)을 투입해 중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5000㎡ 이상 재배 농업인이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중형농기계 1대다. 트랙터와 드론의 경우는 단가 등을 고려해 사업비 4000만원까지 허용되며, 다만 보조금은 18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조율은 60%이며 지원 기종은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건조기, 보리짚제초기, 드론, 농업용 소형트랙터 등이다. 반면 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등 농산물 유통·가공 장비와 과수 관련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은 2월에 이뤄진다. 지원은 3월부터 시작된다. 백금탁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